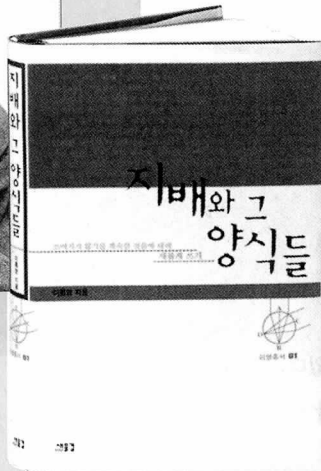




이종영씨

새물결/B6변형/424면/16,000원



'20세기의 기획' 실패 원인 분석해

《지배와 그 양식들》 펴낸 이종영씨

이종영씨는 이 책에서 왜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 분석한다. 자크 라캉의 이론을 빌려 인간의 지배욕망을 파헤치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그는 지배욕망의 근원에는 나르시시즘과 성적 욕망이 자리잡고 있다고 파악하고, 부르주아적 지배양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공생적 재생산의 정치'를 제안한다.

20세기 만민의 평등을 위한 '해방의 기획'은 좌절하고 말았다. '세계를 뒤흔든 10일'로 탄생한 소련은 숙청과 추방, 그리고 처형의 어두운 기억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노동자·농민계급의 도덕적 혁명의 전범으로 꼽히는 '대장정'으로 태동한 중화인민공화국도 문화대혁명의 유희로 얼룩지고 말았다. 인간이 암제의 사슬을 끊고 해방된다는 것은 과연 허망한 꿈에 불과한가.

생산양식의 이행만으로는 인간해방 불가능

《지배와 그 양식들》(새물결)을 펴낸 이종영씨(44, <진보평론> 편집위원)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인간의 해방을 앞세운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혁명가들마저도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질문은 인간의 '지배욕망'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고, 마르크스가 정식화한 생산양식의 이행만으로는 결코 해방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책은 지배의 생산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구성하고, 역사적 지배양식의 변증법적 자기전개 과정을 추적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르주아적 지배양식에서 벗어나는 출구를 모색한다. 이씨는 마르크스의 생산양식 개념이 누락시킨 부분을 지배양식의 개념으로 풍부화하려 한다. 생산양식이 계급에 의해 규정된다면, 지배양식은 인간의 무의식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번 연구는 왜 사람들이 지배를 원하는가 하

는 질문에 대답하려는 것입니다. 지배란 나의 의지에 타자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지배현상의 뿌리에는 나르시시즘과 성적 욕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과 성적 욕망은 타자에 대한 지배를 매개하는 장치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보존본능에 의해 규정된다. 예컨대, 선악과를 먹은 이브는 스스로를 선으로 규정하고 악으로 분류된 타자를 지배하려 한다. 나르시시즘은 자아에 대한 사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인간은 이성의 성적 욕망을 끌어들이는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려 한다.

"지배욕망의 근원에는 '분리불안'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타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부르주아적 지배양식에서 자본가는 분리불안에 시달립니다. 노동계급으로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다른 자본가와 벌이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불안감이 그것이죠. 부르주아적 지배양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안을 생산하는 구조적 조건을 폐기해야 합니다."

'공생적 재생산의 정치'로 이행해야

지배양식의 이행을 위한 전단계로서 봉건적 지배양식, 부르주아적 지배양식, 레닌주의적 지배양식의 특징을 규명한 후, 이씨는 마지막으로 이행의 전망을 제시한다. 부르주아적 지배양식을 철폐하고 '공생적 재생산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주장이다.

"현단계에서 제가 제시하는 이행의 전망은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은 앞으로 제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가 구상한 공생적 재생산의 정치란 복수의 노동자 조직이 정당을 대체하고, 사용자 가치의 요구에 따라 교환가치의 생산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중세의 도시코뮌이나 노동자 평의회 등이 그 역사적 사례입니다."

부르주아적 지배양식은 자본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이씨가 보기에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은 여전히 신분제적 지배양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아직도 부르주아적 지배양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박정희 정권 시기가 자본의 원시적 축적 단계였다면, 19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부르주아적 지배양식이 형성돼 가는 중이라는 게 그의 정세인식이다.

이씨의 이번 책은 그가 기획편집을 맡고 있는 <이행총서>의 첫번째 성과물이다. 이 총서는 "마르크스의 이론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더욱 혁명적이고 더욱 과학적인 이론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 앞으로 <성적 지배와 그 양식들>과 <내면성의 형식들>을 후속작으로 펴낼 예정이다. 또한 알랭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조건들>도 이 총서를 통해 번역될 계획이다. - 박천홍 기자